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18, 2021 Vol. 790

## 창립 30주년 맞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캠페인 전개

### 해외 아동 일대일 결연 캠페인 진행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 한 모두가 좋은 이웃이라는 의미의 '모두가 굿네이버스(We are Good Neighbors)' 캠페인을 11월부터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굿네이버스가 국내를 비롯한 해외 39개 사업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까지 '모두가 굿네이버스' 덕분이라는 감사의 의미도 함께 전한다.

'모두가 굿네이버스(We are Good Neighbors)' 캠페인 영상에는 전 세계 굿네이버스 후원



자를 대표해 배우 최수종과 김현주가 목소리 재능기부로 내레이션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배우 김현주는 2019년부터 3년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에 참여하며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홍보사절단이나 참여한 캠페인 영상은 공식 캠페인 페이지(kr.gooneighbors.us/30th)를 통해 공개된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굿네이버스 30년의 주요 화보를 캠페인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배우 최수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 굿네이버스를 만나 새로운 꿈을 꾸고

변화를 마주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배우 김현주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계 곳곳의 소외된 아이들을 만나며 아주 작은 나눔일지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호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전 세계 아동들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굿네이버스 후원자의 선한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상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3월 국내사업, 국제사업, 조직경영 및 모금 분야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굿네이버스 30년사>를 발간했다.

김동욱 기자

## 존 맥아더 목사 "온라인 예배, 진정한 성경적 예배 아냐"

### "함께하고, 사랑하며, 선행 격려하는 일 있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성경적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10월 31일 온라인에 공개된 팟캐스트 '그레이스 투 유'(Grace to You)의 에피소드에서 맥아더 목사는 "줌(Zoom)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있다. (온라인 예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하도

록 격려하고 동행하는 일'을 충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다. 그들은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였다.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는 친교였고, 주님과 그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 은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는 심지어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교회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교회

다"라고 했다.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개념을 '파라처치'(Parachurch)와 비교하며, 이를 교회를 돕는 사역으로 보았다. '그레이스 투 유'와 같은 팟캐스트를 파라처치의 한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회중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작년, 미국 교회들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폐쇄 조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 이 기간 성도들은 대부분 줌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생방송 예배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레이스커뮤니티교

회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현장 예배 중단을 거부하고 행정 당국의 명령을 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맥아더 목사가 지난 8월 설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작년 겨울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방 당국과 수 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결국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와 합의에 이르렀고,



존 맥아더 목사.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행정 당국은 교회에 80만 달러의 소송비를 지불했다.

LA카운티 대표는 "미 대법원이 예배당에는 일부 공중 보건 안전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소송에 대한 합의는 책임감 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LA카운티는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될 때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우리는 성도들과 전체 지역사회를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준 신앙 공동체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교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별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곤경되어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정성**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책임**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 일고 있습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세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상담 절대 비밀 보장



# 2021년 미주한인예장 총회 임원, 노회장 연석회의 개최



2021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노회장 연석회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엠버시 스위트 호텔에서 2021년도 총회 임원과 노회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드 펜데믹으로 노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 지난해 총회 임원 및 노회장, 올해 45회기 총회 임원과 노회장이 함께한 연합연석회의로 진행됐다.

나와 중남미 지역, 아시아 노회 회원들을 제외하고 미 전역에서 51명의 총회 임원과 노회장들이 참석했으며,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두 번의 새벽기도회 그리고 두 번의 저녁 예배를 드렸다.

김동욱 기자

# 새 한우리교회, 이전 감사 예배로 힘찬 도약 다짐



새 한우리교회 감사 이전 예배 기념 촬영 ©기독교일보

새 한우리교회(담임 강지원 목사)는 지난 14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새 한우리교회가 새로 이전한 장소(1818 S Western Ave #403 Los Angeles CA 90006)는 웨스트민스터와 워싱턴블러버드 인근으로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위치했으며,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강지원牧사는 “새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이전을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며 “새 한우리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전 감사예배는 강지원 목사의 인도로 이재덕 목사(인애장로교회)가 기도한 후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가 설교했다.

박 목사(풍성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새 한우리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나 환란과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새 한우리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이대선 목사가 헌금 기도를 했으며 우상배 목사(멕시코 예수비전영광교회)가 권면하고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가 축사를 전했다.

우상배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모든 교인들이 복음 전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차게 달려가길 바란다”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은목 목사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며 우리가 만나고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새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전 감사예배는 류당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문의 323)702-6709

김동욱 기자

## 2021년 성탄절을 위한 기독교일보 추천 도서



25일간의 성탄 묵상 이장렬 저 | 요단출판사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 이장렬,이충재 저 | 요단출판사

전세계는 코비드19로 인해 여전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충분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든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은 유사한 구성 및 전개 방식을 따르지만, 성탄절에 소홀히 다루질 수 있는 책, 요한복음에 집중한다.

저자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1:1-18) 및 예수님의 ‘나는 ~이다’ 선언을 기록한 일곱 개의 은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독자들을 친절히 안내한다.

『25일간의 성탄 묵상』은 저자가 마태복음 1-2장을 원문에 근거하여 깊이 묵상한 내용을 쉽게 풀어 해설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각자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과 한 줄 기도를 제공한다.

저자 이장렬 교수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닌 의미와 감동을 현대의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끼도록 도우며, 특별히 독자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진한 감격을 회복하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창립목사 및 목회리더십 연구소 대표)는 본서를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탁월한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현장에 관심을 가진 이장렬 교수의 묵상은 탁월합니다. 그의 묵상을 따라 12월 한 달간 매일 점심 전후로 15~20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활동의 혼란 속에서

상실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의미 있는 성탄 맞이와 새해맞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은 유사한 구성 및 전개 방식을 따르지만, 성탄절에 소홀히 다루질 수 있는 책, 요한복음에 집중한다.

저자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1:1-18) 및 예수님의 ‘나는 ~이다’ 선언을 기록한 일곱 개의 은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독자들을 친절히 안내한다.

『25일간의 성탄묵상 II』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에 충분하다. 『25일간의 성탄 묵상』은 저자가 마태복음 1-2장을 원문에 근거하여 깊이 묵상한 내용을 쉽게 풀어 해설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각자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과 한 줄 기도를 제공한다.

이 두 권 각각 성탄절기 동안의 말씀 묵상을 안내하고 돕고자 저술되었으며, 각각 25일간 묵상여정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절기묵상집보다 본문 해설과 묵상의 밀도에 있어 깊이가 느껴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기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성경 묵상으로 이번 성탄과 연말 연시를 준비하기 원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한다.

### ◆저자 소개

이장렬 목사는 2010년부터 캔자스시에 소재한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

이며, 현재 캔자스시 티 한인침례교회의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장렬 교수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제52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참가 인사 올립니다.




취임회장  
김용준 목사

부족하지만 51년 동안 남가주 내 1400교회를 대표하며 교계와 이민 사회를 섬겨온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제51대 회장 이임식과 제5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한인사회 성도님 들 그리고 교계 선후배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우고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회장  
조병국 목사

- 일시 : 2021년 11월 28일(주일) 오후 5:00
- 장소 : 한미장로교회 (김영모 목사 시무)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 문의 : (213) 271-5034 (총무: 최영봉 목사)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본국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교회, 엘바인중앙침례교회 창립

엘바인중앙침례교회(담임 정성택 목사)는 10월 31일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정성택 목사(53)는 “엘바인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 수고하며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하나님께서 엘바인중앙침례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엘바인중앙침례교회는 미남침례교단(SBC) 소속으로 본국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의 지교회로 설립됐으며, 최병락 목사는 엘바인중앙침례교회의 총괄목사직을 맡았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2018년 최병락 목사 부임 이후 “세계와 미국과 한국(세미한)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비전에 따라 2019년 6월, 엘바인중앙침례교회 설립과 파송을 결정했다. 이후 최



두 손을 맞잡은 엘바인중앙침례교회 정성택 목사(좌)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우) ©기독일보

병락 목사와 중직들은 엘바인을 방문해 직접 건물을 찾았으며 2019년 12월 건물 구입을 마치고 정성택 목사를 파송했다. 엘바인중앙침례교회는 코비드 팬데믹 기간 건물 리모델링과 사용 허가를 마쳤다.

이날 창립예배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를 비롯해 김종신 원로장로, 선교위원

장 장태수 장로, 건축위원회 이승원 집사, 강남침례교회 2대 목사인 피영민 원로목사가 참석해 교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정성택 목사의 사회로 김종신 장로의 대표 기도에 이어 장태수 장로가 교회 설립과정을 소개한 후, 최병락 목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행20:28-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병락 목사는 “달라스에서 개척한 세미한 교회를 뒤로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로 부임할 당시 ‘이민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엘바인중앙침례교회를 통해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엘바인중앙침례교회가 중미와

남미, 북미를 잇는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최 목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며 “특별히 목회자는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로 인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승배 목사(남가주 지방회 총무)가 개척보고를 한 후, 김영하 목사(남가주 지방회 회장)가 축사를, SBC 남가주 디렉터인 빌 이건 박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 미드웨스트신학대 제임스 송 총장, 기침 증경총회장 윤재철 목사,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등이 영상으로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피영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정성택 목사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한바 있으며, 대전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동안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맡아 진행했다.

김동욱 기자

## “올해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라크마와 함께 하세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합창의 진수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 2019 라크마 여름콘서트

### 2021 라크마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및 장학생 연주회 유튜브 생중계로 전세계서 격조 높은 음악회 참석 가능해 12월 12일(주일) 오후 6시(미 서부시간), 한글교회

락마 챔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장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가 주최하는 2021 라크마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및 장학생 연주회가 12월 12일(주일) 오후 6시(미 서부시간), 한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올해 음악회에서 라크마 챔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아프리카 어메리칸(BYTHAX) 음악인들과의 협연을 통해 화합과 평

화를 노래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회에서는 1등 2명에게 각각 3천 달러, 2등 한 명에게 2천 달러, 3등 한 명에게 1천 달러 등 총 4명의 학생들에게 9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4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스토리가 담긴 감동적인 무대도 기대해볼 만하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온

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라크마는 이를 위해 음향과 영상 감독을 초빙해 격조 높은 선율에 현장감을 더해 전달할 계획이다.

최승호 단장은 “올해는 그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 생활을 누리고 싶어도 여의치 않았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음악 장학생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0년 결성된 라크마(LAKMA)는 2019년 까지 매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왔으며, 창단 이후 매해 장학사업을 펼쳐 클래식 음악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 타민족과 우정의 하모니를 도모하는 일로 중국, 대만 등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매 해 겨울에는 음악 인재들을 발굴해 장학금과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티켓은 www.thelakma.org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의 213-820-5737

##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가 되어주세요!”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구세군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이 올 겨울 구세군 자선냄비 운영에 필요한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금 기간은 주일을 제외한 11월 19일(화)부터 12월 24일(금)까지며 봉사 시간은 하루 2시간이다.

이주철 사관은 “팬데믹의 여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구세

군은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올해도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냄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때 보다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하루 두 시간의 봉사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213-480-0714 이주철 사관

김동욱 기자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원), 주선(미국수립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예수전도원), 송정명목사(복음선교 공회대표), 권은목사(주빌리아주대표), 신정민목사(동일선 대외이사), 유관지목사(동일선 대표), 김인식목사(SBC 공회대표)

• 할의 책에 대해 면담으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위하여'는 복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선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울립니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관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관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30

“워드(with) 코로나를 넘어 윈(Win) 코로나로 가는 선교”

필자의 아내는 이번 12월에 북해 지역의 민족들을 만나기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난다. 가 기 전 4주간의 단기선교 훈련을 받는 중이다. 남미의 선교사가 휴가를 내어 2주간 북방 지역의 선교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유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이슬람권 선교를 해 왔던 선교적 흐름이 그녀의 영성을 형성했을 것이다. 아내는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오랜만에 나가는 단기선교라 훈련하는 내내 활력이 넘쳤다.

우리 부부가 참여하는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단체의 단기선교는 미주에서만 이번 겨울에 약 400여 명의 단기선교팀이 동원되었다. 약 20여개의 이슬람권 나라들로 선교의 목적이 구분되어 시행하게 된다. 의료팀, 현장기도팀, 샘물학교(선교사자녀훈련)팀, 문화교류팀, 어린이팀, 청소년팀, IT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2회씩 진행된다.

지난 코로나 기간 온 나라들이 자국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던 때도 현장 선교 리더십들은 기간별로 날짜를 체크해서 폐쇄하였다가 잠시 입국 허가하는 때를 잡아 우리 단기선교팀은 그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여 단 한 기간도 거르지 않고 우리의 선교는 계속되었다.

이번 김넷(KIMNET) 대회 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각기의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선교단체와 선교적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선교의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고난 중에도 묵묵히 수행하고 계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압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는 창의적 선교방식으로 계속될 것을 믿는다.

지금까지 통계로는 코로나로 한인 선교사의 사망자가 34명에 이른다. 그러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선교사와 일반 선교사를 포함하면 그 이상의 수가 코로나로 사망했다. 우리 선교회에서도 지난여름 3개월 단기선교 중 한 명이 현지에서 소천했다. 모두가 선교를 떠날 때 자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신의 유서 같은 것을 쓴다. 그도 그랬다. 그는 병에 걸려 1개월여의 투병 중에도 일말의 후회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 그는 우리 선교회의 평신도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진정 존경했고 필자도 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의 아내도 선교회 리더십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베트남 자비랑 선교사이다. 모두에게 후회가 없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다.

이번에 떠나는 400여 명의 단기선교도 그런 각오로 선교지를 나간다. 자신이 바친 9주간의 비전 스쿨 훈련, 그 후에 4주간의 단기선교 특수훈련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2, 3주간의 단기선교, 그 모든 사역 비용을 스스로 자비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헌신 등 선교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엄청난 자기 헌신을 감당하면서 가는 단기선교이다. 그런 그들을 세상은 무모하다고 한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냐고 한다. 위험한 때에 어리석다고 한다. 그런 비난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더 많이 쏟아진다. 마치 130여년 전 조선 땅을 찾던 서방의 선교사들이 울며 떠러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지금 선교 한국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난과 냉소, 위험과 핍박을 마다치 않고 떠난다. 우리가 만날 어떤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이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어 온 나라를 불 붙일 것을 믿으며 우리의 선교팀들은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이들이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신약성경 “하스몬 왕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하에 평화롭던 유대 땅에 환란의 바람이 몰아친 것은 기원전 175년부터였습니다. 형을 이어 셀레우코스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입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며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스”를 자기 이름에 붙입니다. 또 안티오쿠스 4세에 피파네스는 아손이라는 사람로부터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글 대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아손의 대체사장 임명은 다윗 이후 지켜졌던 사독출신이 대체사장이 되는 전통을 깬 것이고,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악정에 대항하여 시작된 마카비 전쟁은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제사장 맛디아스가 시작하고 마카비로 불렸던 셋째 아들 유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맛디아스의 다섯째 아들 요나단과 둘째 아들 시몬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무시할 수 없는 마카비 혁명군으로 세웠습니다.

요나단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밖으로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당시 유럽의 패권 경쟁을 했던 로마와 스파르타 등과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모습은 셀레우코스 왕실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사장에 오른 지 10년 만에 셀레우코스의 실권자였던 트리폰 장군의 계략에 말려 체포되고 맙니다. 요나단이 체포되자 맛디아스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마카비 혁명군의 지휘관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사장권을 승계하여 마카비 혁명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트리폰은 교활했습니다. 포로가 된 동생 요나단을 내세우면서 시몬과의 협상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트리폰을 믿지 못하고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트리폰은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트리폰은 본국에 돌아가 어린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어 셀레우코스 왕조를 직접 통치합니다.

시몬은 트리폰에 의해서 왕에서 쫓겨났지만 셀레우코스의 왕

라 안정을 꾀합니다. 하지만 국내 권력 다툼을 평정한 안티오쿠스 7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큰 위기를 만납니다.

힐카누스는 이 위기 상황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화전을 제안하고 다윗왕의 묘를 열어 삼천 달란트를 안티오쿠스 7세에게 바쳤습니다. 또 유대인군대를 셀레우코스에게 보내 안티오쿠스 7세가 파르티안과 벌이는 전쟁을 돕습니다. 대신 유대의 종교적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나아가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 7세가 파르티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력을 잃자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영토 확장을 합니다.

힐카누스가 대대적인 영토 확장을 하며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했고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남는 이방인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킨 사건인데 이때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개종하고 유대인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신하가 되고 그 때부터 로마 황실과 하스몬 왕가를 낚아드는 권력 쏠다기로 결국 팔레스틴 지역의 실력자가 됩니다.

힐카누스는 외부적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리새파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한 때 이방인의 포로였기 때문에 대체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를 떠나 사두개파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주요 직위에서 제거하고 사두개인들을 중용(重用)합니다.

바리새파와 갈등한 힐카누스가 급격히 힘을 잃고 사망하자 장남인 아리스토틀루스 1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통치체계를 바꾸어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권력강화 작업을 합니다. 형제와 어머니를 정적으로 처형하거나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왕실의 권력투쟁이 하스몬 왕가의 몰락을 재촉하고 헤롯 가문의 등장을 부릅니다.

권을 주장하던 데미트리오 왕과 우호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2년에 ‘시몬 제1년’이라는 공식 연호를 사용하면서 ‘하스몬 (Hasmon) 왕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왕조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역사적 의의가 큼니다. 하스몬 왕조는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멸망한지 445년 만에 팔레스틴에 유대인이 세운 왕조입니다. 비록 다윗 왕조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종교와 정치에서 독립한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바벨론 유수이후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긴 세월 속에서 유대인이 세운 유일한 독립 국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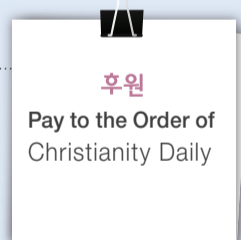
하스몬 왕조의 공식연호를 선포한 시몬은 아직 예루살렘 유새에 남아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대를 강화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및 스파르타와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시몬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유대 땅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왕좌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여리고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된 시몬의 사위 프톨레메오가 장인이 시몬과 시몬의 두 아들들 즉 두 처남을 살해했습니다. 프톨레메오가 유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방문한 장인과 처남 둘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때 시몬의 셋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살아남습니다.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프톨레메오가 보낸 암살단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승계합니다. 힐카누스는 군대를 이끌며 나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100% 정품

100% 정품

Made in U.S.A.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ingredients used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100% 정품

100% 정품

Made in U.S.A.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ingredients used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신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불비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할 수 있으나 원인은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부족, 스테로이드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항성 물질(Ch-Pus Zn)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에서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항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us)을 아연에 칼슘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영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테로이드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항성 물질(Ch-Pus Zn)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에서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항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us)을 아연에 칼슘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영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2)

# 제너럴 셔만호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이같은 현격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첫째, 청일전쟁(1894~1895) 중에 평양이 격전지가 되자 전쟁 중에 일반인들도 신변의 안전을 기대하고 교회로 몰렸다. 또한 전세에 따라 신앙인들이 황해도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분리 개척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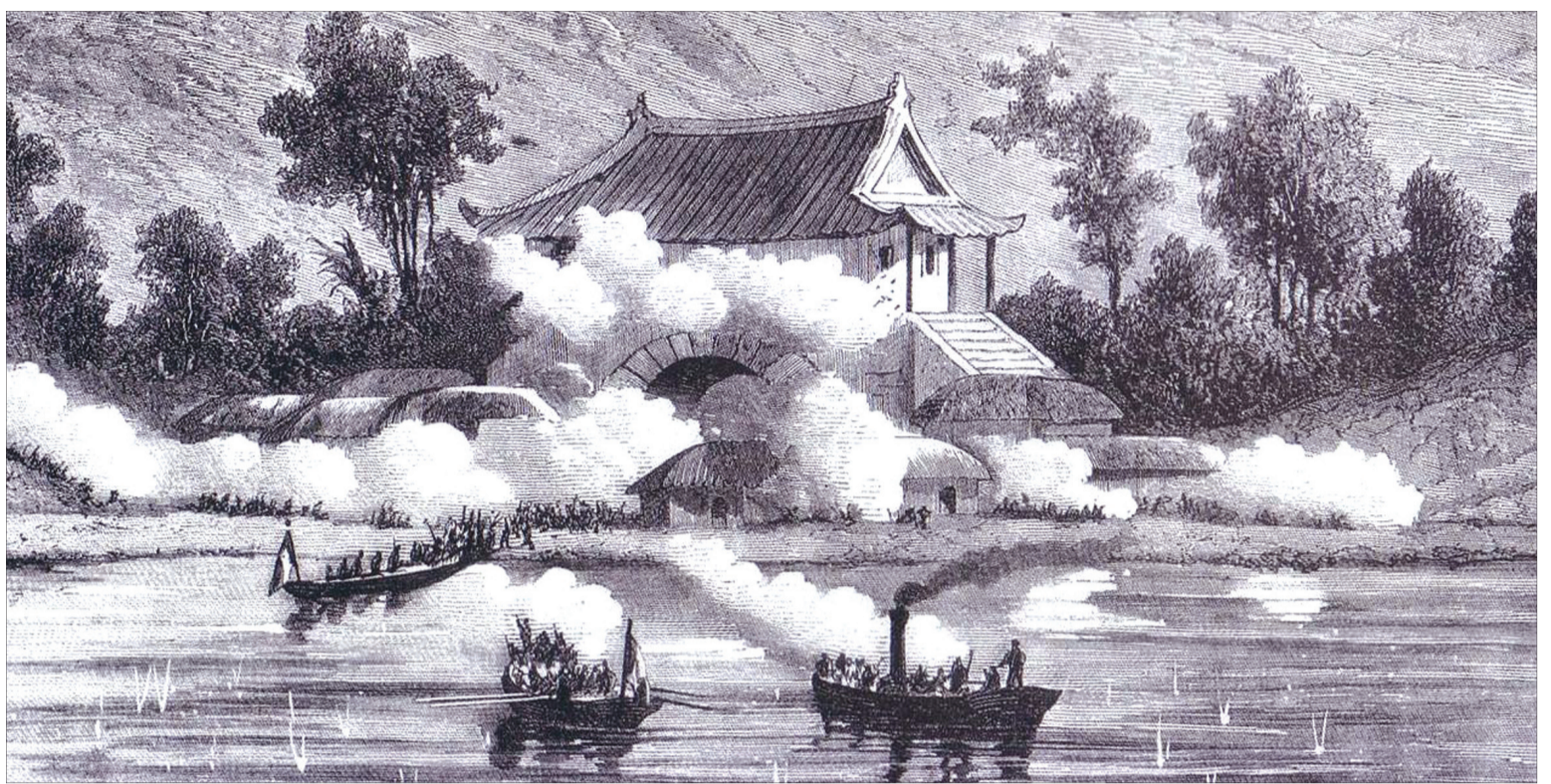
둘째로는 서북지방에서는 양반 계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왕실에서 이 지역의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는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식층들은 유교의 전통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과 종교에 쉽게 심취하는 개방형적 의식이 강하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조선 최초의 장로교 7인 목사가 모두 이북 출신이며 양반 지식층들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석진, 길선주, 서상륜, 서경조, 이기풍 등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셋째로는 이북지방에는 자립적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보수 성향이 아닌 진보적 의식이 강하였기에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넷째로는 선교사들의 사역 중심축이 한성과 경기도, 호남지역보다는 점차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그 증거로서 장로교의 경우 이북 서북지방에 기독교인 수가 1910년에 23,483명인데 반해 경기도와 호남의 기독교인 수는 2,975명이었다. 선교사의 수도 이북 지역의 선교사와 이남 지역의 선교사 비율도 45:25명으로 나타나 있다.

다섯째로는 선교사들의 선교 중점 지향이 이남에서는 주로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 문화 사역으로 나타났고, 이북 지역에서는 전도 사역과 교회 설립에 비중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북 지역 주민들은 개방성과 개척 성향이 강하여 그 지역의 복음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교의 역사에 나타난 선교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병행 되었다. 첫째로는 복음화(Evangelization)와 문명화(Civilization)였다. 조선 말기에 왕실은 서양의 영향으로부터 봉건 왕조 유지가 급선무였기에 그 당시 선교사들의 사역을 늘 감시하면서 경계 시하였기에 한성과 경기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늘 긴장과 절제가 필요로 하였다. 그 예로서 선교 초



제너럴 셔만호 사건 ©wikipedia

기에 최초로 조선에 들어와 왕실의 어의 역할을 하였던 알렌은 언더우드와 여러 선교사들과 사역 활동의 범위를 놓고 갈등이 매우 심각하기도 하였다. 그에 반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북지역에서는 비교적 중앙 정부의 감시로부터 멀었기에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환경도 크게 작용되었다.

한국교회사의 선교 역사에 장을 연 알렌 선교사(1894년 입경),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목사 선교사(1885년 입경)들은 1기에 속한 선교사들이었다. 그 후 다수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북 지역으로 1890년에 사무엘 마펫(Samuel Austin Moffett), 1892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그레함 리(Graham Lee)선교사는 제 2기의 개척 선교사들로 최초로 평양에 선교의 동지를 틀었다. 이들은 평양을 선택하여 이북 지역의 선교 개척자들이 되었다.

이들 선교사들이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평양 대동문에 걸려있는 배의 닻(anchor)과 쇠사슬이었다. 이 대동문은 바로 전면의 대동강 능라도와 양각도 가운데에 있는 출입문으로 가장 중심적인 평양의 관문이었다. 이 선교사들은 그 동문 밖에 달려있는 그 두 개의 장식물에 대해 현지인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30여 년 전의 역사를 돌이키

게 된다. 이들이 평양에 발을 딛기 전에 이미 그곳에 한 알의 밀알이 된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로 그 유명한 제너럴 셔만호(General Sherman) 사건과 연유된 것이었다.

이 셔만호 사건은 사실상 한국 근대사에 물꼬를 튼 역사이면서 한국교회사와 북한 교회사에 새로운 국면을 갖다 준 중요한 사건으로 그 이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후 5년이 되는 1871년에 미국 함대 5척이 강화도에서 이 사건의 진상 조사와 사과와 배상을 제시했으나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미군과 조선군 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역사가 바로 '신미양요'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연유되어 미정부는 조선과의 수호통상 조약을 11년이 지난 1882년에 제물포에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성사시켰다. 그 후 1885년 4월 5일에 한국 교회사의 최초 선교사로 기록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교회사 첫 장을 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셔만호 사건은 조선과의 외교 관계로 이어졌고 그로인한 조선의 근대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셔만호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그 후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폭넓게 일반 통사

적인 측면과 교회사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을 균형있게 객관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 당시의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면, 1860년대에 조선에서는 매우 엄정하고도 불안한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 당시 수렴정정을 하고 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1821~1898)의 치세하에서 국내적으로는 천주교인들이 이미 왕실에 잡입되어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중국과 일본에 매우 활발한 포교 활동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오랫동안 봉건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불교와 유교와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에 몰입해 왔던 지식층들과 권력층에게는 서양의 기독교는 매우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새로운 사상과 종교였기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왕실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외세 종교와 학문이었다. 특히 1801년의 황사영백서 사건 이후 천주학이라고도 하는 천주교를 정치적으로는 매우 경계시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다시 이양선이라고 하는 서양의 큰 배가 요란한 소리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평양 도성 한 가운데에 나타나자 조선 왕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조선 왕실은 청나라가 1884년과 그 후에도 아편전쟁으로 패하면서 서양의 세력들이 중국의 봉건 왕조를 위협하는 모습과 1858년의 일본과 미국과의 수호통상 조약으로 일본

의 정국이 급변을 맞이하는 때이지 정국으로 전환되자, 서양과의 국교 수교와 통상에 대해서는 쇄국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정국으로 치달게 된 것이다. 즉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은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서구의 문물이나 사상의 유입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된 상황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 시대에는 동아시아에 서양의 근대화된 문명이 큰 조류를 이루면서 식민지 개척시대와 맞물리게 되었으며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과 조선도 이 시대적 조류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 역사적 관점으로 이를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 하였다. (계속)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지성호 의원 “정부, 北 인권 중시한다면 방치하는 이중행태”

### 현행법 명시된 유일한 장관자문기구 北인권증진자문위 중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통일부가 현 장관 취임 후 현행법에 명시된 유일한 장관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겉으로는 북한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치하고, 법령상 자문위원회 운영도 중단하는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법정 공식 자문기구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2017년 1월부터 제1기 자문위원 임기가 시작됐고,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은 매년 통일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해 왔다.

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인 관계로 통일부는 2019년 1월이었던 1기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2기 자문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냈고, 이후 2020년 3월까지 5회의 공문을 보내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특히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그 결과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과 5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의 논의가 담겨 있다.

지 의원은 "문제는 2020년 7월 현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는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추천 요

청 공문을 한번도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며,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새로운 국회 원 구성에 부합하는 2기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추천이 지연되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21대 국회 출범 상황 존중, △외교통일위원회의 자문위원운영 규정 관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통일부 답변자료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2019년 11월 통일부 훈령을 개정하여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자문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으며, 특히 21대 국회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 의지만 있다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고, 법률이 아닌 통일부 훈령에 따라 장관 주도로 회의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이를 반영하듯, 오늘 11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바, 결국 법령상 통일부가 21대 국회에서도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며 "나아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자문위 운영 규정 의견이 나온 시점도 2021년 6월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장관 취임 후 1년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통일부의 답변은 공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국회 미흡의 핑계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미루는 것은 차치하고 장관 소관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까지 중단하면 「북한인권법」 사문화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정치적 유훈리를 떠나 법이 정한 일은 마땅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는 김학중 목사

### 축도는 김상복 목사... 방역지침상 500명만 현장 참여



왼쪽부터 김진표 회장, 이봉관 회장, 두상달 전 회장, 이채익 의원. © 이대용 기자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12월 2일 오전 7시 서울 흥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교는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교회), 축도는 김상복 목사(분당 할렐루야교회), 개회사는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회기도는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성경봉독은 신약 송기현(더불어민주당)·구약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500명만 현장에서 참여하며, 식사를 할 수

없어 귀가시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정제원 사무총장은 밝혔다.

기도회 주제는 '공의와 회복'이며, 주제 성경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이다.

특별 기도 주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 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해' 등이다.

현장 참석자가 제한되면서, 방송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하며, 해외 지회 참석자들을 위해 줌 화상시스템을 함께한다. 2030 세대의 적극 참여를 위해 메타버스(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다.

11일 설명회에서 대회장 김진표 의원은 "1968년 시작돼 53회째 이어진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교회 전체와 해외 750만 디아스포라도 함께 참여해온 전통의 기도회"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워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12월 2일 500명 규모로 조찬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인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워드 코로나를 넘어 '윈 코로나, 워드 지저스'가 되길 바란다"며 "가장 시급한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서, 그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하나님 축복 속에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발언, 무지에서 비롯된 촛극”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법 제정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기총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촛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기총은 "국회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을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평등'보다는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차별을 억제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를 기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선 후보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범조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 牧會寶鑑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김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김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名)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태를 일대 거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한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함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오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야만 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정교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사 학위를 받았다. 자랑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트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7가지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김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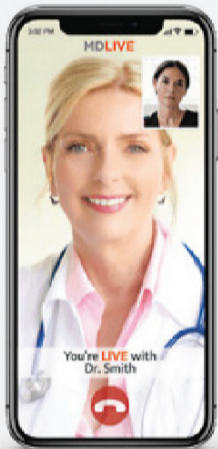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금란출판사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강길 6 ☎ 02-747-1004(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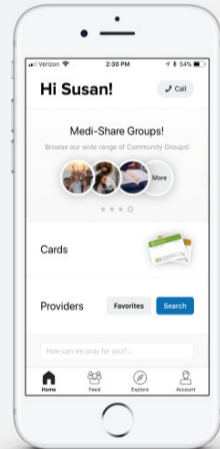
#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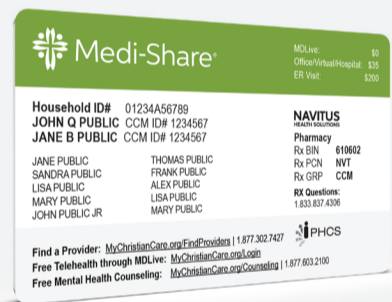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mailto:prozusa2@gmail.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경하고 스나우치림 늘 푸르름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김으로,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ken 코너)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과 Rampart Blvd 교목로 북쪽쪽 위쪽)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잠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전망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수가 사랑하고 사랑과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살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유차부 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일-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보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톨릭)오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청년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주일 1부 오전 9: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영선전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별리새벽**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 예배 오전 6: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평야예배 오후 7:30  
교목부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7, 818-983-8867

**OC새벽** 주일예배 오전 9:00  
EM 오후 1:30  
수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235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최혁 담임목사**

##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 美 예레미야 목사 “사회주의는 반신론… 기독교와 양립 불가”

신간 'Where Do We Go From Here?' 소개하며 사회주의 비판



예레미야 목사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천하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깊이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은 없다. 때로 그들은 성구를 인용하길 좋아한다. 성도들이 쓸 것을 통용했다고 기록한 사도행전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힘든 시기에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순히 더 깊이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사회주의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 사실, 그들은 교회가 대중의 아편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삶 속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그들이 요구하는 충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레미야牧사는 “1917년부터 1979년 사이, 사회주의 치하에서 살해된 이들의 수를 기록한 공산주의자들의 ‘검은 책’이 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사망자의 수는 2배가 되었다”면서 “사회주의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에 상원의원 후보이기도 한 제키엘렉은 “학교가 교육을 결정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이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레미야 목사는 “그것의 뿌리는 사회주의에 있다. 사회주의는 가족에 대한 통제를 원한다. 어머니들을 집에서 내쫓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성명의 일부로서, 그들의 목표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핵가족은 사회주의의 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 큰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가족, 결혼, 교회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운영된다”고 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가 백신 접종, 세계주의, 취소 문화 등 현재의 정치적 풍토에 관해 언급하며,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도우마운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는 7일 오전 안 제키엘렉이 진행하는 ‘모닝브리프’(Morning Brief)에 출연해 자신의 신간 ‘Where Do We Go From Here?’을 소개했다.

예레미야 목사는 이 책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욱 치명적이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자유와 삶의 방식에 가져다 줄 위협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에서 ‘칼 마르크스’가 언급되자, 진행자인 안 제키엘렉은 “현재 ‘우오크주의’(Wokeism)와 ‘취소문화’(Cancel Culture)”라고 불리는 두 가지 모두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기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예레미야 목사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철학에 매료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의 신간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25세 청년들 중 거의 60%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거나 관철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키엘렉은 이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반드시 반신론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자신들이 옹호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예레미야 목사는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실

김유진 기자

#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심장 수술 받고 회복 중

사마리안퍼스, 성명 통해 근황 전해

미국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최근 심장 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는 최근 성명을 통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오늘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소재한 메이요 클리닉에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았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심장 주변에 수축성 심낭염, 그리고 심막경화가 발생해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진들은 그가 완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과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함 목사는 앞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8개 도시에서 진행된 이 전도 캠페인에는 약 56,000명이 참석했으며, 그 가운데 5,000여 명의 결신자들이 나왔다.

최근 마무리된 이 캠페인에 참여한 도시는 일리노이,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스포링필드, 뉴멕시코, 앨버커키, 오클라호마시티, 텍사스, 아마릴로,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등이다.

캠페인의 공식 웹사이트는 “프랭클린 목사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실직, 앞에 놓인 두려움 등으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사마리안퍼스

고군분투할 때, 각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며 복음을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초대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의 영원한 평안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그래함 목사의 투어 연설을 비롯해 뉴스보이즈, 마르코스, 위트 등을 포함한 음악 그룹도 참여했다.

그래함 목사는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망은 바뀌지 않는다”며 “비록 나쁜 소식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66번 국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바란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교회 80%, 코로나19 기간 현장/온라인 예배 동시 제공



©Pixabay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교회 약 80%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성도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을 선택해 예배드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회 가운데 약 25%가 코로나19 규제와 관련된 갈등을 다소 또는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7%의 성직자들이 기술적 조율, 정부와 교단의 코로나19 집합 제한에 대한 결정, 식량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해 증가한 요구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였다고 고백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올해 38개 교파 2,074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에 따른 교회의 상황을 다룬 첫 번째 프로젝트다.

이번 연구를 발표한 스코트 톰바 수석 연구원은 "여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종교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했다.

그는 "성직자의 3분의 1이 작년 사역에서 가장 힘든 해였다고 응답하지 않은 사실에 놀랐다"며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느 해의 사역이 작년보다 어려웠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형태로 살아남은 많은 집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한 전혀 좋지 않은 형태로 남겨진 많은 집단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했다.

약 88%에 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동안 대면 예배를 중단했으며, 이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연구원들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의 출석률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2019년 이후 35%의 교회에서 성도수가 25%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8%의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성도수가 성장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성도수가 25% 이상 줄었다고 답한 교회는 18%였다.

예배의 전달 방식은 추가 출석률의 증가나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의 15%는 15.7%의 가장 가파른 출석률 감소를 보였다. 온라인 예배만 제공하는 교회들 중 5%는 출석률이 7.3% 줄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들의 경우, 80%가 전체 성장률의 4.5%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17%의 교회에서 1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으며, 37%는 최소 1명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금은 40%의 교회에서 증가한 반면, 또 다른 30%의 교회에서는 감소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연구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 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씨니킴 담임목사**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美 루터교 학생들, 암 투병 교사에게 찬양 선물



캐롤 맥 교사가 학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오로라보건소

지난 3일 미 위스콘신의 학생들 24명이 4기 암 진단을 받은 교사를 위해 병원에 모여 찬송을 불러 화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26명의 1, 2학년 학생들이 밀워키에 있는 오로라보건소에 입원 중인 교사 캐롤 맥을 만나기 위해 학부모들과 동행했다. 학생들은 입구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빅벤드의 크라이스트 루터교 학교에서 45년 동안 교사로 활동해 온 맥은 올해 오로라 보건소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4일 학생들의 방문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오로라보건소 측은 "어제 26명의 학생들이 병원 입구 밖에 줄을 섰다. 캐롤은 자신이 이전에 가르쳤던,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섰고, 아이들의 찬양을 들었다"고 했다.

오로라보건소에 따르면, 맥의 동료 교사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호스피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소와 학교의 도움으로 이는 현실이 됐다.

맥은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준 이번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이 찬양이 사제 간의 멋진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맥은 "아이들의 찬양은 압도적이고 매우 특별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가 어떻게 무치게 됐는지 사람들이 알길 바란다"고 했다.

센터가 학생들의 방문을 소개한 게시물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차례로 맥과 포옹을 나누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진들은 오로라보건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맥을 돕고 있는 팀원 중 한 명인 루이자 캠프스는 CBS 58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방문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다"며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 우리는 운 좋게도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직원들의 자서전에 의하면, 맥은 항상 루터교 학교의 교사가 되길 꿈꿔왔고, 크라이스트 인 빅벤드에 소속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교직에 들어갔고, 교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아직도 처음 '우리' 교실로 걸어 들어갔던 일을 기억한다. 루터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의 꿈은 이제 곧 실현될 것이었다. 이것이 대학에 간 이유이고, 난 도전을 위한 준비가 돼 있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 중국 정부, 종교단체 성직자 제한 강화... 지하 가정교회 겨냥한 듯

중국 공산당이 가정 교회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2018년도의 종교 업무 규정을 보완한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됐다.

이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교회, 중국기독교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그 중 제3조는 성직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중국 사회주의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한 교회가 국기 게양식을 하고 있다. ©비터윈터

또 제6조와 12조는 각각 성직자가 "불법 종교 활동" 및 "종교를 이용한 해외 침투(선교)"에

## USCIRF "독립·소수민족·외국관련 종교 단체 단속에 악용 가능성"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침략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을 동원해 성직자에 대한 감시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성직자의 충성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 시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는 이번 새 규정이 중국에서 불법인 가정교회를 "중국 공산당과 삼자 교회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새 규정이 도입된 이후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시샹의 조셉 장웨이주 주교를 포함

한 수십 명의 지하 가톨릭 사제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했다.

또 구이저우성 구이양 시에 위치한 런야이 개혁교회 소속인 장 춘레이 장로와 리빙스턴 교회의 양 후아 목사 등 가정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이에 차이나에이드는 "국가종교청이 신규 및 전현직 성직자들을 감시하고, 엄격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직자를 감시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가정 교회는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 동남아시아 지역 관리자인 지나 고는 올해 초 CP와 인터뷰에서 "중국 전역의 가정 교회들이 교회 습격, 활동 단속, 지도자 구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의 음모는 중국 가정교회의 회복 능력 덕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문화대혁명에서도 살아남았고, 시진핑 시대에도 생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오픈도어즈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2020년 23위였다가 2021년 17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간 무려 26계단이 올랐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김유진 기자

## 이란 기독교인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



(좌로부터) 바바크 호세인지데와 벤함 아클라기, 사헤브 파다이. ©오픈도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란 기독교인 두 명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 받은 후 영상을 통해 정부에 예배장소 확보를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같은 호소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의 일환인 '#Place2Worship'으로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아티클18, 세계기독교연대(CSW)와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최근 시작했다.

바바크 호세인지데와 벤함 아클라기는 2019년 이란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가정교회 교인으로 체포된 기독교인 개종자 9명 중 일부였다.

그 후 법원은 '기독교 시온주의를 조장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 혐의로 이들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최근 몇 주 동안 휴가를 받아 출소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석방된 후 교회 출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부에 요청하는 메시지를 녹음했다.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헤브 파다이(Sahab Fadaie) 목사도 이들의 청원에 합류했다.

아클라기는 영상을 통해 "이란 정부는 '우리는 당신의 믿음의 신념을 존중한다. 여러분과 관련된 유일한 문제는 가정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정부에게) 존경심이 정말 존재한다면 석방된 후 우리는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영상에는 호세인지데가 감옥에서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어린 딸과 재회하는 장면이 포함된다.

이 단체들은 이 영상을 유엔인권위원회인 미첼 바첼레트에게 제출했고 바첼레트 대표는 곧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CT는 전했다.

이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올해

초 반안보단체와 반국가 선전과 관련된 이란 이슬람 혐의의 변경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법안은) 거짓되고 모호한 증거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과 같은 인정되지 않은 소수 종교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당국이 기소할 수 있는 더 큰 범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픈도어 옹호이사인 데이빗 랜드럼 박사는 "이란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단 4곳만 열려 있으며 이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어 방문객이나 새로운 신자를 환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고 했다.

랜드럼 박사는 "이란 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예배 장소 부족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설명된 대로 이란이 서명한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독교 개종자들이 가정교회에 참여하다 적발되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된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이란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50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미경 기자

##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또 예배 급습, 교인 60명 납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에메카 우메그발라시 제공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괴뢰에 의한 교인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7일 카두나 주의 카카우 다지에 위치한 임마누엘 침례교회에 무장 괴뢰들이 습격해, 예배 중이던 교인 60명 이상이 납치되고 교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현재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추가 테러의 위협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즈'는 지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망을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오픈도어즈는 "강도들은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통신망을 찾아 더 멀리 이동해야 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요구했지만, 교

회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회장인 조셉 야야 목사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보안 강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는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무장괴뢰들이 점차 마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월간 매체인 '가톨릭 헤럴드'는 납치된 교인들의 수가 100명에 이르며 교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오픈도어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부 대변인인 조 뉴하우스는 "이번 납치는 이른바 노상강도의 대담함과 나이지리아에서 확산되는 범죄에 대한 '무처벌' 행태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3A, Los Angeles, CA 90006  
Tel: (323)943-0301, Fax: (323)943-0302  
www.aeu.edu/info@aeu.edu, g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준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현역 이종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CE),  
신학교(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성경읽기의 중요성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성경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암기 하여 그것을 서로 암송하며 나누기를 시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억을 더듬어 성경의 여러 부분을 글로 써서 함께 나누기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성경책이 아닌 핸드폰으로도 성경과 찬송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는 성경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점 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의 시대적 환경과 배경과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 출판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독서를 즐기기가 보다는 마스크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기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신수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명령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히브리서 4:12

그리스도교 신앙인 특유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읽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핵심이 바로 성경읽기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이며 또 신자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나누는 것이 기쁨이요 간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생겨났던 로마시대에는 교회회의 대부분이 완전한 본문을 갖춘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그래서 온전한 성경을 갖추기 위해서 원본의 성경을 베껴 사용했다

### 밥은 먹고 합시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를 함께하자는 요구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일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말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 그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셨습니다. 우리와 소원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 화목제는 서먹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와의 친목과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는 대부분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자가 식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화목은 같이 식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많이 존경하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멀리 이사 가시면서, 헤어짐의 아쉬운 표현으로 “한요에게 우리 집 김치 맛도 못 보여주고 가네...”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즘은 마켓에서 김치를 사서 먹는 시대가 되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김치 맛이 있었습니까. 그 김치 맛을 보았다는 것은 그 집과의 특별히 친한 교제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가정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밤상에 초대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집의 김치 맛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김치 맛은 보셨나요?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일 아쉬워했던 것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식당의 문이 열리면서 친구들이랑 식당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체증이 날아가듯 모든 우울한 것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식당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님들은 띄엄띄엄 앉아서 때론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곳에 천막 치고 먹는 밥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가득가득 모여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우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 두렵고 험악했던 팬데믹 기간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어요”라고 하시는 말이 친근히 느껴집니다. 심방은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같은데, 식사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올 해 같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 받은 복을 세어보려 해도 문제와 염려로 마음이 꼭 차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믿음의 권속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크게 감사할 바가 없을 때, 그럴 때 더 작은 것, 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적 공급에 대해 무뎠어 당연스럽게만 여긴다. 반성해야 하고 곰곰이 복을 세어봐야 한다.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친지와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감과 상황의 중압감 때문에 “당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기나 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

이 세상에 누가 어려움 없이 살까? 누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질병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없이 살고 있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산다.

문제와 걱정과 압도돼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을 느낀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보기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폭풍으로 인해 작은 배가 거의 침몰되었을 때 주님은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또 한 번은 폭풍을 뚫고 물위를 걸어 다 가오셨다.

두 번 다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탓

#### ■ 제이슨 송 칼럼

###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셨고, 두 번 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삶의 문제와 역경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거나 주저앉지 말자. 주님은 폭풍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자. 주께 눈을 맞추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의 손을 꼭 붙잡자.

우리만의 힘으로 계속 노를 저어봤자 조수와 풍랑을 넘어 전진할 수 없다. 하지만, 주가 함께 하면 폭풍도 이겨낼 수 있고 목적지에 안전이 도달할 수 있다. 제자들은 후자가 더 좋은 선택임을 배웠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자. 복을 헤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폭풍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자. 그 분은 우리를 돕고 구해주시실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를 사생아가 아닌 자식으로 여기 시기에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좋은 신 하나님, 풍랑 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골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등학교 교장)

#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5-28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기대와 욕구를 위하여 세운 꿈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 개꿈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전혀 원치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 하시는 경우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가르치는 목적이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 1. 하나님 사람의 비전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은 그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를 그렇게 총애했듯이 그가 낳아준 아들도 열한 번째 아들이었지만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37:3-4 에서와 같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중략)...언사가 불평하였더라”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당히 불만거리가 되고 그 불만이 크면 클수록 요셉은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본문 37:5-11에서 자신이 꾸는 꿈들을 그의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욱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 요셉이 열일곱 살 때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각별한 총애 속에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어느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형들에게 먹을 음식도 전달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창37:14)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떠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다가움을 모고 그를 해치고자 모의를 합니다. 오늘 그를 죽여 그의 채색옷에 그의 피를 묻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만형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렁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합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

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다고 창세기 37:22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은 이십개를 받고 요셉을 넘겨줍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임을 얻고 그 집의 모든 경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에게 지혜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39:2-3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39:7-10에서와 같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중략)...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계속적인 유혹에도 요셉은 신앙으로 이겨나가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그는 왕께 범죄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39:21-23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하고는 그 꿈들을 해몽하여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고 또 당신의 위치가 안전해지거든 그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려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던중 바로왕이 꿈을 꾸게되고 그 꿈들을 그 나라 안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바로가 꾸는 꿈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중략)...그 세악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창41:1-7)

바로는 요셉을 불러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합니다.

창세기41:25-32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중략)...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하고 말하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이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한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중략)...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창41:38-46)

이와같이 요셉은 죄수에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 7년의 흉년이 든 동안 곡식을 모았다가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애굽은 물론 전국 각처에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었기에 열 명의 아들로 애굽으로가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기 전 꾸었던 꿈과 같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2.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단방법과 노력으로 세상의 허황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힘을 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총애를 혼자 차지한다고 형들이 미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열일곱 살이나 먹은 사람이 자신의 꿈이 야기를 자랑스레 하여 더욱 큰 미움을 산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의 끝 날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꿈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10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I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로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채권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김도인의 아트독서 목차 잡기에 승부를 걸어라

# 책 쓰기 전, 목차 정할 때 신경써야 할 3가지

책의 제목을 만들었다면,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한다. 목차는 제목을 만들 때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의 책은 독자들에게 ‘목차가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이유는 목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목차가 80%다

독자의 손에 들리는 책이 되려면 제목, 표지, 목차가 중요하다. 김도사(김태광)와 권마담은 《김대리는 어떻게 1개월 만에 작가가 됐을까》에서 “책 쓰기는 목차가 전부다”라고 말한다.

필자도 목차를 중요시한다. 필자는 책의 제목을 본 뒤(표지 디자인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드시 목차를 본다. 목차가 필자의 책 구매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목차가 좋으면 서론과 결론까지 읽는다. 그러면 100% 책을 사게 된다.

필자가 목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목차가 집의 기둥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차만 보면 어떤 책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필자는 목차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확신한다. 책을 처음 쓰는 사람은 목차를 몇 개 잡아야 하는지부터 묻는다. 그러나 목차의 개수보다 목차를 산뜻하게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차는 보통 40여 개 전후가 적당하다. 그런데 책을 처음 쓰는 사람에게 목차를 40여 개 잡으라고 하면 당황해한다.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40여 개나 되는 목차를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목차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3주째 목차만 잡고 끙끙대고 있어요!”

이 말은 목차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목차를 잘 잡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른 책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정교한 목차를 만들어야 한다.

유명 출판사는 한 달이면 원고가 1천여 개 들어온다고 한다. 그 중에서 채택되어 책으로 출간되는 원고는 극소수이다. 그 원고들이 채택되는 이유는 제목이 좋고, 소재목인 목차가 좋기 때문이다.

필자도 책 출간 의뢰를 받으면,

목차를 정하는 데 많은 힘을 쏟는다. 목차만 봐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책에 어느 정도 정성을 쏟았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에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책의 제목을 잘 잡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목차가 좋습니다.”

목차를 잘 잡는 비결이 있다면, 목차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책을 출간하려고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목차에 관해 이런 말을 들었다. “책은 목차가 80%를 차지하니, 목차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때 목차가 중요한 것을 처음 알았다. 최근에도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목차를 잡았다. 그 목차를 고치고 또 고치며 갖고 닦았다. 이처럼 목차가 아주 중요하다.

목차가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라면, 목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된다.

책 제목이 독자의 선택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라면, 목차는 출판사가 책 출간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목차가 책 출판의 80%를 차지한다는 말은 책을 쓰고자 하는 예비작가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 목차 잡기가 저자의 실력이다

글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목차 잡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를 사로잡는 목차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출판사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차를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원고를 투고해서 출판사 관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목차 잡기에 남다른 실력과 안목을 갖춰야 한다.

목차를 잘 잡으려면 매일 매일 자신을 제대로 채워야 한다. 만약 자신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책 쓰기가 고역이 될 수 있다.

1800년대 영국의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이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어느 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하루를 채워야 한다. 인생을 채우듯 목차를 채워야 한다. 목차를 채우려면,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날들로 채워야 한다.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목차 잡기의 실력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루 1시간 책 쓰기》의 저자 이혁백은 책을 쓰고 싶지만 필력이 없다는 이유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작가는 글솜씨가 좋아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 쓰기를 통해 글솜씨를 키우고 필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담백한 문장력, 문법 등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들이는 시간에 누군가는 벌써 책을 몇 권 써서 운명을 바꾸고 있을 테니까요.”

목차 만들기도 글쓰기와 같은 이치다. 목차를 하루하루 고민 가운데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남과 차별화된 목차를 잡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 목차 잡을 때 세 가지를 신경써라

목차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목차 잡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차에는 아래의 세 가지가 담겨야 한다.

첫째, 내 콘텐츠가 담겨야 한다.

내 책의 목차에는 책의 콘텐츠가 총정리되어 담겨 있어야 한다.

둘째, 경쟁 도서와 차별화되어

야 한다.

저자는 자신의 책의 메시지와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경쟁 도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책 쓰기는 경쟁 도서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의 트렌드가 반영되어야 한다.

책은 책을 쓸 당시의 문화와 트렌드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당시의 트렌드와 관련이 깊지 않으면 독자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문화와 트렌드가 반영될 때 독자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

결국 책의 목차는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경쟁 도서를 분석해 경쟁 도서보다 낮게 써야 한다. 그리고 당시의 트렌드를 담아, 타깃으로 한 독자에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를 엄두에 두고 목차를 잡되, 한 번에 잡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잡아야 한다. 목차는 책의 콘셉트가 정해지면 잡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고치고, 또 고쳐야 한다.

필자는 콘셉트를 잡으면, 목차부터 잡는다. 목차는 책 쓰는 분량의 3분의 1을 더 잡는다. 곧 60개 이상을 잡는다. 글을 쓰다가 콘셉트와 잘 맞지 않는 것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책을 쓰기 전부터 목차 모음집을 만든다.

책을 쓸 때는 목차 잡기에 집중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 제

목 잡기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 ‘아트설교연구원’에서는 설교를 작성할 때 ‘제목 잡기’에 많은 힘을 쏟게 한다. 그 이유는 제목에 따라 설교 방향이 결정됨은 물론, 좋은 제목이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제목을 잘 잡기 위해, 회원들에게 좋은 문장이나 좋은 제목을 메모하게 한다. 이같이 유도하는 것은 제목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목이 겹치면 청중의 관심이 똑 떨어진다. 이것은 책의 목차에서도 마찬가지다. 목차에 새로움과 낯설이 없으면 독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책이 될 확률이 높다.

목차가 책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목차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목차를 잡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평소에 책을 읽다가 좋은 목차가 나오면 메모해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의 제목을 참고하는 것이다. 목차 잡기에 최선을 다하되, 모방을 통해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 파트타임**
-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방 있습니다**

**월 600불**

애나하임 가정집 2층 베드룸 렌트  
젊은 남자분 직장인이나 학생 환영

**714-337-6888**

전화 혹은 텍스트 문자 주세요.



#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멀티슈, 주일예배, 교과교과, 마그네틱 앨범, 교과교과, 마그네틱 앨범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블 새 시리즈 <이터널스> (1)

# <이터널스>의 서사, 신화와 철학의 혼종과 해체

<이터널스>, 전혀 앞뒤 맞지 않는 끔찍한 혼종 현대 물리학 이론 활용해, 비교적 손쉽게 해결 필요한 설정과 이론 여기저기서 가져와 짜깁기 마블 작품들, 유독 다원주의 이념 적극 추종해

◆마블과 철학: 헤라클레이토스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차용한 <이터널스>

마블의 새 영화 <이터널스>는 선사 시대부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도운 신화적 히어로 집단이 등장한다. 영화 설정상 이들은 수천년 동안 음지에서 인류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역할을 맡았고, 일부는 고대 인류에게 모습이 노출되어 신으로 추앙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히어로 집단 '이터널스'도 사실 그보다 상위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고 이용당하는 처지에 불과하다. '셀레스티얼'이라는 초월적 외계 종족이 바로 이터널스의 창조자다.

강대한 힘과 높은 지능을 가진 셀레스티얼은 특정 조건이 갖춰진 행성 안에 씨앗을 심어 부화시키는 식으로 종족을 보존한다. 다시 말해 한 행성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개체를 얻는 것이다.

셀레스티얼이 부화시킬 알로 삼는 행성이 될 조건은 그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번성해서 수준 높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행성에 거하는 지적 생명체들이 산출하는 정신력을 에너지 삼아 셀레스티얼이 번식을 한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셀레스티얼은 그 강대한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파괴된 행성 혹은 항성계를 대신할 새로운 항성계를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셀레스티얼은 우주 내 항성 및 행성의 생성소멸을 주관하게 된다.

이렇듯 초월적 힘을 가진 인격적-지적 생명체가 우주의 생성-성장-소멸의 질서를 주관한다는 <이터널스>의 설정은 고대 각국 신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서구 철학이나 동양 종교 사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에서 이와 유사한 철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은 기원전 6세기, 소크라테스보다 한 세대 앞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이다. 그는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대표

적인 범신론자로서, 우주 전체가 바로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재의 진리를 파헤치려 노력했다.

그는 신의 본성이 생성과 성장, 소멸을 반복하면서 그 자신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우주적 질서인 로고스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헤라클레이토스는 서구 범신론 전통, 생성소멸 중심의 존재론 전통, 그리고 로고스론의 주장자가 되었다.

훗날 이 '로고스'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에 의해 그 의미가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 성경에 차용되기도 하였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신론 가운데는 신, 즉 우주의 완전한 소멸과 재탄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는 우주가 일정한 주기로 대화재를 겪으며 이전의 우주가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가진 우주가 새롭게 탄생하며, 이런 과정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르쳤다.

우주의 소멸과 생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전체 질서가 유지한다는 사상은 동양 종교에서도 간간히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도교의 태극사상이나 신종교에 널리 퍼져 있는 후천개벽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서구 철학에서도 이 전통이 암암리에 이어져 왔는데, 19세기 후반 니체가 이를 자기 사상의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 바로 그것인데, 우주 전체가 일정한 주기로 영원히 같은 과정의 생성-성장-소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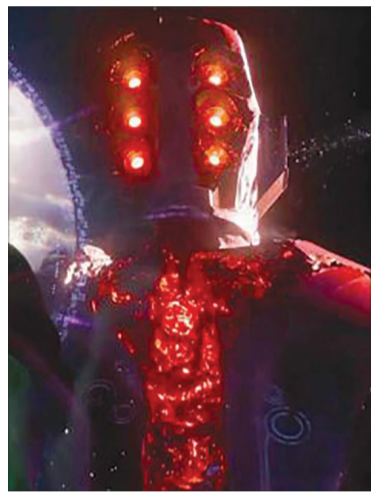
그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도 영원히 똑같이 반복되므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인간의 삶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뜻도 되기에, 사실상 인간에게 선택지란 없는 꼴이기 때문이다.

◆마블과 과학: 마블 서사 속 빅뱅 이론과 다세계 해석

어쨌든 니체에 의해 서구 현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새 작품, <이터널스>.



<이터널스>의 최종 빌런이자 초월적 종족인 셀레스티얼

철학사 전반에 재등장한 헤라클레이토스 우주론은 자연과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대 천체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난 후, 이 빅뱅으로 인한 우주 확장이 끝나고 다시 빅뱅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우주 소멸의 수축(빅 크런치)이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이론이 등장한 것이다. 진동 우주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은 194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 서사 스케일을 점차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왔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설정과 사상,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과 서구 철학, 유럽과 고대 근동 신화, 그리고 현대 물리학 이론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이터널스>의 주인공인 이터널스 종족과 궁극의 빌런 셀레스티얼 종족 역시 신화와 철학의 설정을 빌어 창안된 캐릭터들이다. 이들의 탄생을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과 고대근동 신화가 주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히어로와 빌런

들의 등장은 마블 코믹스 세계관을 보다 풍성하고 볼거리 많게 만들어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갈수록 설정과 세계관의 내적 불일치 및 충돌 문제를 낳았다.

마블 코믹스 작가들은 이 문제도 현대 물리학 이론을 활용해, 비교적 손쉽게 해결했다. 양자역학에서 파생된 가설, 평행세계론 혹은 다세계 해석을 통해 해결한 것이다.

이 이론은 마치 전자가 아원자 단계에서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파동인 것처럼 우주 역시 서로 연관성을 가진 '우주들이' 한꺼번에 여럿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블 코믹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이 이론을 차용해서 설정의 충돌이 생기거나 스토리 리셋이 필요할 경우, 작품의 배경을 다른 시공간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우주로 거침없이 옮겨버린다.

이렇게 잡다한 종교적 가르침, 철학 사상, 신화와 전설, 그리고 과학 이론을 종합한 마블 서사는 부분적으로는 얼추 서사의 개연성이나 논리가 들어맞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본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비현실적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뒤얽힌 끔찍한 혼종, 키메라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그때 필요한 설정과 이론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서사 전체를 일관되게 연결할 질서가 자리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 조류는 오히려 이런 무질서와 혼돈을 더 사랑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 이유는 체계적 '구조'에 대한 의존이 인간 개개인의 삶의 자유와 개별성을 억압한다고 믿는 포스

트구조주의가 문화 전반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타자성에 대한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윤리적 방향성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개체마다 천차만별로 분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과 개성들 사이의 충돌을 삶의 본모습이자 정상 상태로 여겨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마블의 뒤죽박죽된 서사 설정과 세계관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보다 온전하게 풍자하는 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각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세계관에는 각각 내세우는 특정한 진리 주장이 있다. 마블 서사는 이 진리 주장을 혼란 속에 버무려 해체함으로써, 이들의 융합을 방해하는 배타성의 벽을 허물어버린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진리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마블의 여러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터널스>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서사의 이런 혼종적 특성은, 진리 주장에 대한 도전과 해체를 환영하는 세태를 입증한다. 마블 작품들이 유독 다원성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원성 이념은 마블 서사의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이 없으면 마블 서사는 삶을 온전히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상충된 견해와 주장들을 이리저리 열기설기 이어붙인 혼종으로밖에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b>국외부재자 신고기간</b>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2022.01.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b>재외선거인 등록신청</b>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까지 by January 08, 2022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 2022년 상반기 일정

-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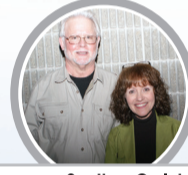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학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서적 베스트 셀러, "말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말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최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재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오렐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집트 앞바다 수에즈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땅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펠릭스네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 땅을 의미합니다. 오렐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월, 3월에는 김승학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아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 요르단 (4박 5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호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바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운전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방이동

### 두바이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물, View at the Palm, 속메디나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하접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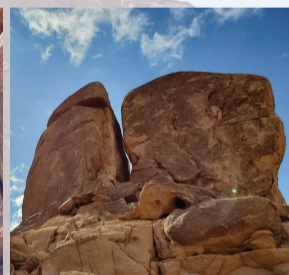
엘림



엘리아의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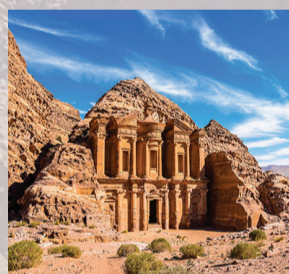
금송아지 암각화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으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길'이라는 뜻의 히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